



신라가요(新羅歌謠)에 나타난 달의 의미고(意味考)

Research of the Lunar Meaning appeared in Silla-Poetry

저자
(Authors) 김연수

출처
(Source) [동악어문학 18](#), 1983.10, 265-306 (42 page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18](#), 1983.10, 265-306 (4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악어문학회](#)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1579>

APA Style 김연수 (1983). 신라가요(新羅歌謠)에 나타난 달의 의미고(意味考). 동악어문학, 18, 265-30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2 17: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歌謠에 나타난 달의 意味考

金 蓮 洙

目 次	
I. 緒 言	4)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 事의 달
II. 本 論	3. 不變하는 존재
1. 祥瑞로운 존재	1) 怨歌의 달
1) 棼星歌의 달	4. 高邁한 人品
2)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 事의 달	1) 讀老婆郎歌의 달
2. 解脫의 形狀	2)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 事의 달
1) 願往生歌의 달	III. 結 語
2) 處容歌의 달	參考 文獻
3) 諸轉法輪歌의 달	

I. 緒 言

人智가 발달하지 못했던 古代人들은 아직 自然을, 바라보고 즐기며 사랑하는 순수한 抒情의 대상물로 文藝에 표현하지는 못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自然에 대해 두려움과 고마움을 느끼고 자연이나 자연의 모든 현상을 인간생활과 연관시켜서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古代信仰이 발생했으며 다른 민족의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공통되는 것이지만 우리 古代人의 공통적인 신앙대상도 자연숭배(nature worship)이었다. 이는 자연숭배, 또는 拜物敎라고도 일컫는 원시종교로 하늘·땅·해·달·별과 같은 천체나

2)…東岳語文論集 第十八輯

바람·비·번개·우뢰와 같은 자연현상이나, 산천·하해·연못 등 자연물이나, 초목·동물과 같은 생물 등을 숭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은연중 노래 속에도 나타났으니, 上代歌謠로 손꼽히는 麗玉의 <篋篋引>을 비롯하여 首露王을 맞이하기 위해 九干 등 여러 민중이 춤추며 부른 <龜旨歌>, 水路夫人을 구하기 위해 여러 백성들이 以杖打岸하면서 부른 <海歌詞>, 百濟 行商人의 아내가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부른 <井邑詞> 등 모두가 이러한 自然에 대한 두려움과 고마움의 발상이다. 이처럼 古代人들의 생활은 대부분 自然에 대한 畏敬에서 영위되었기 때문에 上代歌謠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古代人들의 歌謠 속에 등장하는 소재도 또한 하늘·땅·해·달·별·자연현상·산천·하해·연못·초목·동물 등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달은 古代人들과 가까운 곳에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 곤경에 처할 때나 자연현상에 큰 변혁이 있을 때, 古代人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의식 속에 같이 하면서 訴託·怨望·戲弄 등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현대인에게는 인공조명에 의하여 우리 생활에 달빛이 아무런 실용성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인간의 달 착륙으로 달의 신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려 古代人들이 지녔던 것과 같은 달에 대한 의식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古代人들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라는 동요와 같이 밝은 달을 쳐다보며 천년만년 동안의 끝없는 삶을 영원하고 있다. 이처럼 李太白과 달은 동요에도 등장하는 친근한 이미지로 전해 내려온다. 워낙 李太白이 좋아하던 달이요, 계수나무가 있고 姮娥가 살고 있는 신비스런 달이다. 이런 달 속에서 부모와 함께 영원하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古代人들의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인간적인 열원이다. 이러한 달이었기 때문에 鄭鉉은 <鄭瓜亭曲>에서 ‘殘月曉星’으로 자신의 無罪함을 맹세했던 것이다. 결국 永遠者인 自然을 흠모하여 瞬間者로서의 허무감을 超克하려는 作者의 심정을 自然 속의 달에 投影시켜 본 것이다. 古代歌謠에서 四君子를 志士로 새기는 것과 같이 달은 王의 恩寵이요, 님의 모습과도 比喩

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현실에서의 고뇌, 현실에서 弱화된 인간의 영혼이 응당 가야하고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관념하면서도 가기가 두려운 motherland 에 대한 인류적인 무의식적 감정의 세계를 표상한 것이다.”¹⁾ 松江은 <關東別曲>에서

겨근덧 밤이 드리	風浪이 定하거늘
扶桑 咫尺의	明月을 기다리니
瑞光 千丈이	빛는듯 숨는코야

라고 하여 달에 대한 神秘的 체험을 표현하고 있다. 저 扶桑에 숨어서 瑞光 千丈하는 蒼茫無限한 視覺의 경지를 이룬 달빛이며 자연 속의 신비로움을 詩歌에 담고 있다. 또 “朝鮮朝 여인들의 달의 이미지는 自然에 기탁하여 현실을 잊어버리는 突破口로써 달을 深化시킨 審美의 달이며 詩의인 관조가 훌륭하다.”²⁾

李白은 <靜夜思>에서

牀前看月光	침상에서 달빛을 바라보자니
疑是地上霜	영락없이 땅 위엔 서리 깔린 듯
舉頭望山月	고개 들어 山달을 바라다 보고
低頭思故鄉	머리 숙여 고향집 생각을 하네. ³⁾

와 같이 달을 바라보고 고향집을 생각했는가 하면 <月下獨酌> 其一에서는 “三盃通大道 一斗合自然”의 酒豪의 풍채를 보였고 <月下獨酌> 其二에서는 꽃 사이에서 한 병의 술을 놓고서 달과 그림자를 벗삼았다. 따라서 “李白의 飲酒詩에는 飲酒 그 자체가 주요한 主題로 부각되기도 하나 대개는 離別·懷古·閑適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素材이며 發想은 陶醉와 覺醒의 상관관계의 척도이다. 취증에서 인생의 有限性을 克服하여 永遠을 누리려는

1) 黃濱江: 沈滄說話의 分析, 국어국문학 31호, p.122, 국어국문학회, 1966.

2) 金明姬: 詩歌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리 考究, 東岳語文論集 第14輯, p.254, 東岳語文學會, 1981.

3) 李丙時: 韓國文學上の 杜詩研究, 李杜比較論, p.336, 二友出版社, 1979.

점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定論이 나온다.

“평생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한 杜甫는 <旅夜書懷>에서 ‘星垂平野濶 月湧大江流’라 하여 揚子江도 고향으로 흘러 가건만 자신은 갈 수 없는 처량한 心懷를 달에 매개시켜 具象化시키고 있으며”⁵⁾ <月夜>에서는 달을 매개로 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妻子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달은 고향으로 이어지며 임으로 이어지며 영원한*삶의 안식처로 古代人들의 詩歌에 投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니와 “古代人의 信仰에는 달은 육체를 이탈한 영혼의 집합소이고, 種子의 守護者이므로, 달이라는 것은 여성적인 의미를 가진 생명의 源泉이기도 하다.”⁶⁾는 C.G. Jung의 주장이 同軌임을 알 수 있다.

또 古代人들이 달에 대해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한 우주-신화론적인 해답은 Mircea Eliade의 *Cosmos and History*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우주-신화론적인 달의 관념에서 가장 지배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던 사실의 순환적 재현, 한 마디로 영원회귀라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형적인 행위를 반복하려는 그 반복의 모티브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모든 차원——우주적인 차원, 생물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 등——위에 투사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원형적인 행위의 반복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적 구조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차원에서나 간에 새로운 ‘출생’이 비롯될 때마다 시간이 재생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회귀는 시간과 생명의 의하여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의 존재론을 보여주고 있다.”⁷⁾

이처럼 달은 永遠回歸를 의미하며, 나타나서 커지고 기울고 사라지고 사흘 동안의 어두운 밤이 있고, 그 밤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나는 月面의 변화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循環概念(cyclical concept)과 통하는 것이다.

4) 金明姬: 前掲 論文, p.55.

5) 李丙時: 杜詩意譯批注, 五言律詩篇, p.192, 通文館, 1958.

6) C.G. Jung: *The Collected works* Vol. 5, pp.317~318.

7) M. Eliade, 鄭銀弘 譯: *Cosmos and History*, p.128, 現代思想社, 1976.

月面의 변화, 뜰 달의 盈虧는 주기적인 재생이므로 인간생명의 리듬과 통할 수 있으며,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年季交替와도 상통할 수 있는 것이니, 인간이 달과 교류하는 것은 이러한 리듬 속에서 古代人들이 현실적인 인생을 초월해서 끝없는 永遠回歸를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東西洋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달의 주기적인 재생이 古代人들의 소박한 永遠回歸의 사상과 일치함에서 달은 다른 자연물보다도 고대인들과 친근해질 수 있었으며, 또 善神으로도 崇拜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렇게 원초적인 의미의 달이 우리의 上代歌謠인 新羅歌謠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의미로 구체적 發現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新羅歌謠의 修辭的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달이 등장하는 新羅歌謠로는 <彗星歌>를 비롯하여 <願往生歌> <處容歌> <怨歌> <讚耆婆郎歌>와 <均如傳>所載의 <請轉法輪歌>이며,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事에 등장하는 달도 같은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梁柱東은 羅代人の 歌謠의식에 대해서

羅代人は 무릇 詞腦歌를 다만 風詠·戲樂의 具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요 정말 天地神明을 감동시킬 수 있는 神聖한 무엇으로 看做한 것인데, 이는 저 上代 震人이 歌樂을 天·神과 交通할 수 있는 무슨 超自然力, 或은 神鬼를 驅使할 수 있는 무슨 呪術의 힘으로 관념한 그대로의 遺傳이다.⁸⁾

라고 하여 歌謠를 超自然的·呪術의 힘이 있는 것으로 관념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羅代人뿐만이 아니라 모든 古代人들의 不便하고 不滿足스러운 당면한 現實문제를 가요의 超自然的·呪術의 힘에 의존하려 했던 作歌者(歌唱者)의 열원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핀 다음, 현실과 열원이라는 二元的인 新羅歌謠의 의미구조 속에서 달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8) 梁柱東：增訂古歌研究，p.54，一潮閣，1981.

Ⅱ. 本 論

1. 祥瑞로운 존재

1) 彗星歌의 말

啓運東戶叮叱乾邊婆矣
游鳥隱城叱盼良望良古
倭運叱軍置來叱多
烽鶴邪隱邊也蔽邪

三花矣岳音見賜鳥戶聞古
月置八切爾歎於將來戶波衣
道戶撤戶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有叱多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北所音叱彗叱只有叱故

〔의〕 예전 東海 골가 「乾邊婆
는 城」(陋氣樓)을랑 바라보고
「倭軍도 왔다!」고
烽火란 든 邊方이 있어라!

〔내〕 三花의 山구경 오실은 들고
달도 부지런히 등산을 켜는데
길 산 번을 바라보고
「彗星이여!」 사된 사람이 있구나!

〔해〕 아으 람은 저 아래로 떠갔더라
이 보아 무슨 彗星이 있음고.

〈梁柱東：增訂古歌研究, 〔의〕〔내〕는 筆者 附註〉

본가의 배경설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 第七實同郎等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
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恠即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欲召 遣郎遊
岳焉⁹⁾

세 花郎(居烈郎·實處郎·實同郎)이 楓岳에 놀러가려 하는데 彗星이 나타
나 心大星을 범하므로 郎徒들이 심상하지 않게 여겨서 楓岳에 놀러 가
기를 그만 두려 했다. 그 때 融天師가 <彗星歌>를 지어서 불렀더니 彗星이
즉시 사라지고 일본병은 물러가서 도리어 복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되었으
며 대왕이 기뻐하여 花郎을 楓岳에 놀러 보냈다는 설화다. “詞腦歌를 神聖
視·呪術視하는 傳統的인 遺風을 端的으로 보이는 好例인 동시에 그 談遊

9) 三國遺事 卷之五 感通 第七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

的인 歌風과 巧緻한 直喩法 等 詞腦歌 중에서 가장 우수한 藝術的 技巧를 보이는 名作이다.”¹⁰⁾ 이렇게 “〈彗星歌〉는 神聖性·呪術性이 뚜렷함을 알 수 있거나와 그럴수록 노래의 源원, 곧 作歌者의 源원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배경설화의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난 바와 같이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한 것으로 보아 彗星이 출현했다는 것은 融天師를 비롯한 전 古代人들에게 있어서 不吉한 징조로 不便하고 不滿足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融天師가 당면한 현실문제는 바로 이 ‘彗星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融天師가 源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天師作歌 歌之의 결과로 나타난 바이지만 ‘星恠即滅’이며 ‘日本兵還國’이다. 그러면 融天師가 〈彗星歌〉의 어떠한 의미구조로써 星恠를 소멸시키려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0구체 가요는 그 형식에 있어서 제 4구, 제 8구, 제 10구는 반드시 종결어미로 표현된 것이 원칙이며 거의 예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彗星歌〉 역시 이에 준하므로 편의상 釋詞의 附記처럼 (가)(나)(다)의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가)에서 옛날 동해에서 蜃氣樓를 보고 倭軍으로 생각한 邊方과, (나)에서 三花郎의 出遊에 달도 축복을 내리는데 길 쓸 별(道尸掃尸星)을 보고 彗星이라고 사된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다)는 歌意를 총결산하여 彗星의 소멸을 부르짖은 結詞이다. (가)의 ‘예전 동해 물가’는 시간적·공간적인 배경으로 倭寇가 출현했던 사실이 있는 옛날의 그 장소를 뜻하며, 蜃氣樓를 보고서 왜군으로 착각한 邊方의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실제 착각사건일 수도 있고, 또 현재의 直面하고 있는 倭寇의 출현을 물리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의 歌詞에 충실해서 의미를 파악한다면 蜃氣樓를 倭軍으로 착각한 것이 (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나)에서 중심구절은 “길쓸 별을 바라보고 ‘彗星이여!’ 사된 사람이 있구나”인데, 이 표현은 ‘有彗星犯心

10) 梁柱東：前掲書，p.562.

大星'이라는 설화의 기록이 있는 한, 彗星이 길 쓸 별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달은 부지런히 등불을 켜서 축복을 내림으로 해서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사실이 되도록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金烈奎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星槎가 倭賊侵略의 前兆인 바에야 星槎의 倏滅은 倭賊退治의 前兆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결과도 그것을 惹起시킨 原因에 의해 가장 쉽게 處理될 수 있다는 呪術心理가 作用하는 것이다. 彗星이 부정되었듯이 같이 부인된 倭賊인 것이다. 彗星에 관한 呪詛가 隱喻法의 呪詛가 되어 作用할 대상 그것이 倭賊인 것이다. 彗星이 彗星이 아니라 하는 謬想은 이에서 생겨난다. 幻覺 내지 願氣가 곧 倏라고 단정한 것은 그 때문이다. 倭賊이 願氣에 불과하다는 그말이 실제로 倭賊을 願氣처럼 霧散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¹¹⁾

이처럼 星槎단 截滅한다면 倭賊은 자연히 퇴치될 수 있다는 呪術心理에 따라 不吉한 彗星의 截滅을 위해서 달이 등장한다. 세 화랑이 산구경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밝히려는데 彗星과 같은 不吉한 징조가 나타날 리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나)에서는 길 쓸 별을 彗星으로 보았다는 의미이다. (가)에서 願氣樓를 倭軍으로 착각한 것은 과거사실(哲理)로 돌림으로써 倭寇가 사실이건 허위이건 克服이 되었으며 또 현재의 倭寇출현을 截滅하기 위한 과거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倭寇가 아니라 願氣樓이기를 바라는 祈願이며 염원이다. (나)의 길 쓸 별을 彗星으로 본 것은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에 의해서, 즉 달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므로써 彗星이 아니라 길 쓸 별이라는 역관계를 염원하고 있으며 마침내는 배경설화의 기록 “時天師作歌 歌之 星槎即滅”과 같이 彗星이 소멸하고 만다. (가)에서 願氣樓를 倭軍으로 誤認했던 것처럼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나)의 彗星도 인간의 誤認이기를 염원하면서 달이 등장하고, (다)에서도 “아오, 달은 저 아래로 떠갔는데 무슨 彗星이 있을꼬”라고 하여 再次 달

11) 金烈奎: 謠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謠歌의 語文學的 研究, p. 18, 西江大人文學研究所, 1972.

을 등장시켜 彗星의 不吉함을 祲禳하며 (가)의 倭軍까지도 물리치고 反成 福慶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또 “記述物이나 歌謠에서 三花之徒는 모두 楓岳에 갔으며, 彗星과 日本兵은 출현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닌 상태로 환원 되었음은 주목을 요한다. 이 노래에는 기대하는 바를 이미 성취한 것처럼 의척대면 결과도 또한 그대로 된다는 呪術心理가 나타나 있다.”¹²⁾ 결국 이러한 呪術心理와 달의 존재를 강조하여 融天師는 彗星의 출현이라는 당면한 현실을 祲禳하고 그가 염원하는 바——星佐即滅 日本兵還國——를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歌謠에서 彗星의 출현이라는 현실상황과 관념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語辭로는 ‘倭軍’ ‘烽火’ 등이며, 彗星의 소멸이라는 염원과 관념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은 ‘蜃氣樓’ ‘三花의 산구경’ ‘길 쓸 별’, 그리고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달은 彗星의 소멸이라는 염원과 관념적인 동조는 물론이러니와 彗星의 출현을 祲禳하는 적극적인 質體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彗星이 나타났을 때 融天師는 <彗星歌>를 지어 부름으로써 彗星을 소멸시켰다. 이것은 融天師 자신의 呪術이 <彗星歌>를 통하여 發現된 것이며 노래 속에서 그러한 呪術心理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달은 어떠한 관계로 존재하는가? 倭軍·烽火와 관념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彗星의 출현’은 세 花郎들이 의아심을 품고 산구경 가는 것조차도 그만 두려고 할 정도로 天災·國亡·兵革·敗戰 등의 大凶을 豫見하는 것이므로 달과는 相反된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蜃氣樓·三花의 산구경·길 쓸 별 등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는 ‘彗星의 소멸’은 달의 지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달의 의미는 自명한 것이니 불길한 현실과는 相反된 의미로 작용하며 이를 祲禳할 때의 달의 의미는 분명히 祥瑞로운 존재라 할 것이다.

2)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事의 달

12) 林基中：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p. 255，二友出版社，1981.

祥瑞로운 존재로서의 달은 《三國遺事》의 문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新羅歌謠 14수가 본래 《三國遺事》에 그 배경설화의와 함께 실려 있어, 歌謠와 설화는 不可分의 관계이므로 古代人들의 의식이 新羅歌謠에나 설화에나 동일하게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新羅歌謠의 달을 논하는데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事의 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有一紫卵 焉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 位號曰居瑟郁 時人爭賀曰 今天子已
降 宜覓有德女君配之……中略……理國六十一年 王升于天 七日後 遺位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陵爲五陵 亦名蛇陵 公陵寺北陵是也
太子南解王繼位¹³⁾

朴赫居世가 紫卵에서 태어났을 때 東泉에다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었으며, 天地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했다는 것이다. “朴赫居世는 珠·鈴·環形과 유사한 원형의 알에서 나와 천능의 超人力을 가지고 建國의 始祖로서 군림했다. 구슬이 갖는 전능적인 呪力觀念이 알을 통해서 始祖가 소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⁴⁾ 이처럼 朴赫居世는 非凡한 인물이며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이라는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子로서 神聖性을 지니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朴赫居世神話의 白馬는 나는 天馬로서 神聖의 降臨을 인도하였고, 그 所任을 마치자 다시 하늘로 되돌아 간 것이라 보인다.”¹⁵⁾ 설화의 기록 중에서 몸에서 光彩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했다는 것은 天子의 下降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日月清明’의 달이 단순히 지시적인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天子인 朴赫居世의 下降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

13) 三國遺事 卷之一 紀異 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14) 林基中: 前掲書, pp. 86~87.

15) 金烈圭: 韓國의 神話, p. 36, 一潮閣, 1977.

투는 달이며 神聖의 降臨을 보호해 주고 축복해 주는 祥瑞로운 존재로서의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맑고 밝게 빛났던 것이다. 朴赫居世는 그 誕生이 신비롭고 상서로웠던 것처럼 그 죽음도 또한 신비롭고 상서롭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屍身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7일 후 그 죽은 몸뚱이가 땅에 흩어졌는데 다섯 토막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당의 再生祭儀 때와 이것을 비견하여 볼 수 있다. “무당의 再生祭儀 때는 그 시신이 우선 찢어진다. 그리고는 다시 합해진다. 그로써 그 무당은 재생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달의 원리’가 비쳐져 있다. 무당의 再生祭儀는 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달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강강수월래’는 詩的인 데 비해 이 再生祭儀는 魔的이다. 赫居世神話의 죽음의 모티브는 이 東北 아시아에서 행해졌던 무당의 재생체의 의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¹⁶⁾ 따라서 朴赫居世의 죽음의 모티브는 달의 흉내를 내고 있으며, 달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까지 달의 원리를 반영했던 古代人들의 再生과 永生の 순박한 인간적인 열원을 엿볼 수 있으며, 신성하고 상서로운 존재로 달을 생각했던 古代人들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金傳大王>條에서도

太祖之孫 景宗 伯 聘政承公之女爲妃 是爲憲承皇后 仍封政承爲尙父 太平興國三年戊寅崩 謚曰敬順 冊尙父語曰 勸姬周啓聖之初 先封呂主 劉漢興王之始 首開籓何 自大定寰區 廣開基業 立龍圖三十代 躡麟趾 四百年 日月重明 乾坤交泰 雖自無爲之主 乃開致理之臣。¹⁷⁾

이라고 하여 高麗 太祖의 손자 景宗 伯은 政承公(敬順王)의 딸을 맞아 王妃를 삼고 政承公을 尙父로 책봉하는 謚命에 ‘日月重明’이라고 하여 日月이 등장한다. 姬周와 劉漢이 呂尙과 籓何를 각각 봉함으로부터 寰區는 평

16) 上揭書, p. 13.

17) 三國遺事 卷之二 紀異 第二 金傳大王.

12)…東岳語文論集 第十八輯

정되었고 널리 莖葉을 열어 龍圖는 三十代를 세우고 甌隣 400년을 이어나 해와 달이 ‘重明’하고 천지가 交泰했다. 비록 無爲의 君主로서 시작되었으나 역시 輔佐하는 신하로 해서 일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日月은 평범하게 낮을 밝혀주는 해요 밤을 밝혀주는 달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重明’의 의미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王室의 흥성과 莖葉의 長久함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고 있다. 王權은 곧 神에게서 받은 것이며 또 神에 의해서 박탈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신성하고 상서로운 일에 日月이 축복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한 古代人들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달의 의미는 姬周와 劉漢의 麟趾를 보호해 주고 인정해 주는 상서로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解脫의 形狀

1) 願往生歌의 달

月下伊底亦	가	{ 단하, 이제 西方저정 가서서 無位佛前에 일러다가 사죄소서
西方念丁去賜里迦		
無量壽佛前乃	나	{ 다짐 깊으신 尊을 우러러 두 손을 모두와 「願往生」[願往生] 그런 사람 있다고 사죄소서
憍叱古音多可支白迦賜立		
嚮音深史隱尊衣希仰支	대	{ 아오, 이 몸을 길어 투고 四十八大願 이루신까(정사유네)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迦賜立		
阿邪 此身遣也遣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深柱吏：增訂古歌研究，(가)(나)는 筆名 附記〉

本歌의 배경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文武王代 有沙門名廣德嚴莊二人 友善。日夕約曰 先歸安養者須告之。德隱居芬皇西里 蒲鞋爲業，挾妻子而居。莊庵極南岳 火種力耕 一日日影掩紅，松陰靜翠 窓外有聲報云 某已西往矣。惟君好住 速從我來 莊排闥而出願之。雲外有天樂聲 光明屬地 明日歸訪其居 德果亡矣。於是乃與其婦收散 同營菑里。既事 乃謂婦曰 夫子逝矣 備處何如。婦曰可 遂留夜宿 將欲通焉。婦斬之曰 師求淨土 可謂求魚緣木

莊驚怪問曰 德旣乃爾 予又何妨。 婦曰 夫子與我 同居十餘載 未嘗一夕同床而枕 況觸汚乎 但每夜 端身正坐 一聲念阿彌陀佛號 或作十六觀 觀旣熟 明月入戶 時昇其光 加趺於上 竭誠若此 雖欲勿西奚往 夫過千里者 一步可規 今師之觀 可云東矣 西則未可知也 莊愧赧而退 便詣元曉法師處 懇求津要 曉作淨觀法誘之 莊於是潔己悔責一意修觀 亦得西昇 錚觀在曉師本傳 與海東僧傳中。 其婦乃芬皇寺之婢 蓋十九應身之一 德嘗有歌云。 ……¹⁸⁾

上記 배경설화에 나타난 바와 같이 文武王代 沙門인 廣德과 嚴莊이 修道하여 西往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願往生歌>가 전하는데 彌陀淨土思想에 젖은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본가의 作者가 누구지에 대해서는 異說이 分분하여 廣德妻作說¹⁹⁾, 廣德作說²⁰⁾, 元曉作說²¹⁾ 등이 있지만, 李丙疇는 <願往生歌>의 解題에 ‘德嘗有歌云’이라고 한 기록을 주목하여 廣德이 이르기 노래에 이르기들의 뜻이며 분명히 ‘作歌曰’이 아니므로 <願往生歌>는 당시에 불리던 노래를 廣德이 불렀을 따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²²⁾고 하였으며 崔喆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傳承歌謠²³⁾로 보고 있다. 그러나 作歌者의 문제는 論外로 하더라도, 作歌者(歌唱者)의 堯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前記한 어느 說에 따르든지간에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경설화 중에서 “窓外有報云 某已西往矣 惟君好住 速從我來……夫子……但每夜 端身正坐 一聲念阿彌陀佛號 或作十六觀 觀旣熟 明月入戶 時昇其光 加趺於上 竭誠若此 雖欲勿西奚往……莊於是潔己悔責一意修觀 亦得西昇”이라는 내용과 노래 속에 나오는 ‘願往生願往生’이라는 구절로 보아 作歌者(歌唱者)가 누구이든 堯원하고 있는 것은 ‘往生’이요, 반대로 현실은 ‘德隱居芬皇西里 蒲鞋爲業 挾妻子而居 莊庵栖南岳 火種力耕’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叢海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삶, 곧 ‘穢土의 生’이라 할 수 있다. 穢土의

18) 三國遺事 卷之五 感通 第七 廣德·嚴莊.

19) 梁柱東: 前掲書, p. 498.

20)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p. 97, 乙酉文化社, 1961.

21) 金恩暉: 鄉歌의 文學의 研究, pp. 227~228, 啓明大出版部, 1979.

22) 李丙疇: 新羅歌謠의 研究에 서서 (古典의 叢書②), 月刊文學, 1930. 2月號.

23) 崔 喆: 新羅歌謠研究, pp. 118~120, 關文社, 1979.

有限的인 삶에서 벗어나 永生하고자 하는 것이 <願往生歌>의 發想이다. 그러던 穢土의 生에서 벗어나 往生하고자 歌咏한 <願往生歌>의 의미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가는 ‘달하’라는 호칭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梁柱東은 이에 대해서

‘하’는 원래 呼格助詞 ‘아’의 古音介入古形으로 그것이 近古文獻에 妙稱에 專用되었음은 上例 ‘帝下, 님금하, 世尊하’ 등에서 明白한데, ‘鑑阿·月下·心下’ 내지 ‘돌하’와 같이 自然物 내지 자신에 대하여도 敬語를 사용함은 上古語의 습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유래 自然物에 稱하여 情懷를 읊르는 形式 특히 本歌와 같이 ‘돌하’로써 起句를 삼음은 羅代 이래의 一傳統的 歌謠形式이니.....²⁴⁾

라고 하여 ‘하’는 尊稱呼格助詞이며 자연물에 稱하여 情懷를 읊는 형식, ‘달하’로써 起句를 삼음은 羅代 이래의 한 전통적인 가요형식임을 설명하여 여기서 달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노래의 성격이 완전히 불교적임에 이러한 인격적인 달이 불교적인 의미의 말입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金東旭은 본가의 달에 대해서

달은 다른 詞體歌 중에도 數三次 나오지만 西方과 관련된 阿彌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노래가 처음이다. ‘月印千江’과 一切衆生 悉有佛性의 大乘의 견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娑婆에 비쳐지는 달은 虛虛한 真空과 眞如의 法海속에 구상화된 西方의 使者로서 初步的인 觀念의 표현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西方은 淨土三部經에 의하며라도 過十萬億佛土를 지나친다. 그러나 그것은 觀念에만 있을 수 있는 것 具象化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달은 阿彌陀의 化身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遊嬉의 往生證嚴偈에도 “面善圓淨如滿月”이라 있듯이 圓融한 法身 자체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²⁵⁾

라고 하여 달을 ‘西方의 使者’ ‘阿彌陀의 化身’ ‘圓融한 法身 자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중하게 불떠서 세우고는 訴託을 하고 있는데 달이 西方淨土까지 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서 ‘西方겨정 가셔서’와 같이 표

24) 梁柱東： 前掲書， p. 499.

25) 金東旭： 新羅淨土思想의 展開과 願往生歌， 新羅歌謠研究， p. 364, 국어국문학회, 1979.

현하고 있다. 西方에 가거든 無量壽佛께 염원을 전해달라는 내용이다. 廣德은 無量壽佛께 직접적으로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라는 西方의 使者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염원하고 있다. 염원하는 바를 염원의 대상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달이라는 중개자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염원 대상과의 거리를 의식한 것이다. 이 대상과의 거리를 의식한 것은 자신의 無力感 또는 畏敬感인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염원할 수 없는 것이다. 穢土의 중생들은 갈 수 없지만 달 너만은 자유로이 西方까지 갈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無量壽佛께 일러다가 사귀어 주길 바란다고 간접적으로 청원하고 있다. 결국 (가)에서는 西方淨土까지 갈 수 있는 달이란 의미인데 이러한 생각은 古代人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요, 진리와 같은 사실로 통했던 것이다. 穢土에 어둠이 시작될 때 모든 광명은 西方으로 가기 때문에 西方은 영원한 빛의 세계요 영원한 삶의 세계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西方淨土를 달은 자유로이 드나들며 인간의 염원을 전달해 준다고 믿었던 新羅人이었으며 古代人이었다. (나)에서는 阿彌陀佛께 願往生하는 求道者가 穢土에 있다는 사실을 달로 하여금 전해달라는 詞意이다. 노래의 핵심부로서 往生을 얻고자 하는 염원의 절실한 표현이며 신앙심의 고백이다. ‘다칠 깊으신’은 대상에 대한 찬양의 뜻을 갖고 있으며 그 대상을 숭고하게 만들고 超越의이게 하여 기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尊을 우러러 두 손을 도두와 願往生願往生”은 다소곳이 阿彌陀佛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기원하는 모습과 내용이다. 이러한 모습과 기원의 내용을 달로 하여금 無量壽佛前에 전해 달라는 부탁이다. “稱名念佛으로써 淨土에 往生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학식에 물들어 있는 批判的인 淨土感보다는 보다 庶民的이고 또 眞實한 종교적 발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닐까 한다.”²⁶⁾ 이렇게 서민적이고 또 진실한 종교적 발상이기 때문에 願往生을 소박하게 天上의 달에 부탁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天上의 달에 부탁한 내용, 즉 往生을 염원하는 廣德이라는 의미다. 마지막

26) 上揭論文, p. 364.

(다)에서는 廣德 자신을 이승에 그대로 남겨두고, 몸이 몸을 부처님이 계시는 西方으로 데려가지 않고서는 四十八大願을 이룰 수 없다는 詞意인데 은연중에 威嚇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願往生 願往生을 외며 서쪽으로 넘어가는 달에 부처 자기의 애원을 전해 달라는 애절한 모습이 눈에 선해 보이는 듯하며, 그만큼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修觀의 성숙에 대한 자부심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四十八大願에 대해서 金雲學은

원래 阿彌陀佛이 法藏菩薩로 있을 때 世自在王佛에게 세운 誓願 四十八願이 있는데 이 四十八願中 第十七願부터 第三十二願까지 攝諸衆生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廣德은 阿彌陀佛이 그 자신의 願力 때문에 나란 차마 버리고 正覺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赤子와 같은 純情을 發하고 있다. 이 往生願은 第十八念佛往生願에도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부처가 되어 十方衆生이 지극한 마음으로 내 나라에 나기를 원해 十念을 외우면……” (設我得佛 十方衆生 至心信樂 欲生我國 乃至十念)이라 하여 衆生의 문제보다 阿彌陀佛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廣德은 자신을 갖고 “이 몸 穢土에 끼쳐두고 四十八大願을 이룰 수 있을까?”로 노획한 것이다.²⁷⁾

라고 하여 攝諸衆生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阿彌陀佛이 그 자신의 願力 때문에 廣德을 차마 버리고는 正覺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며, 往生願은 중생의 문제보다 阿彌陀佛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自負心을 갖고 (다)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가요는 (가)에서 西方淨土까지 갈 수 있는 달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나)에서는 廣德이 往生을 염원하는 사실을 달에 부탁하여 無量壽佛께 전해주기를 바라며 結詞 (다)에서는 廣德 자신의 修觀成熟의 自負心으로 은근히 威嚇을 하면서도 간절한 염원을 발한다. 古代人들에게 있어서 달의 존재는 西方淨土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인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부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너무 불공평한 질투의 마음이 들었다고나 할까? 그러니 달 너만 가

27) 金雲學：新羅佛敎文學研究，pp.262~263，玄岩社，1976.

지 말고 나도 같이 데리고 가 달라는 은근한 뜻을 엿볼 수 있다. 고대인들이 이처럼 달이 西方淨土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穢土와 淨土의 架橋 역할을 할 수 있는 西方의 使者로 믿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願往生歌>의 달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經典에는 부처님을 밝은 달과 같고 그 제자들은 반짝거리는 밝은 별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등근 달은 涅槃의 형태로 보고 등근 형상은 곧 진리의 형태요, 바로 佛菩薩의 정신을 의미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달을 穢土와 淨土의 架橋 역할을 할 수 있는 西方의 使者로 믿은 것은 이와 같은 불교적인 상징에서 연유한 것이겠지만 <願往生歌>의 달이 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作歌者(歌唱者)의 현실과 염원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본가의 語辭 중에서 往生이라는 염원과 관념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은 ‘西方’ ‘無量壽佛’ ‘四十八大願’ 등이며 반대로 穢土의 삶과 관념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릴 사람(이 품)’이다. 달은 往生이라는 염원과 관념적인 동조는 물론이요, 穢土에서 往生으로 이어주는 적극적인 質體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穢土의 有限的인 삶에서 벗어나 廣德은 자신의 佛法的인 往生努力과 <願往生歌>에 의해서 西方淨土에 往生하게 된다. 노래 속에 나오는 달은 의미구조상으로 볼 때 穢土의 生이라는 현실과는 相反된 대립의 의미를 지니며, 西方·無量壽佛·四十八大願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고 있는 ‘往生’에는 지향적인 관계이다. 穢土의 生에서 벗어나 往生할 수 있는 것은 해탈한 존재이어야 할 것이니, 이 인격적으로 본 달이 西方淨土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고 믿은 것도 해탈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正覺에 도달하면 西方淨土로 간다고 믿는 것처럼 西方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달도 古代人의 눈에는 迷界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 곧 해탈의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西方에 갈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며, 西方의 使者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더 나아가서 法身으로

도 생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處容歌의 말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膀隱吾下於叱古
二膀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가〕 서툼 없으 무라
밤드리 노니다가
〔해〕 드려야 자리 보관
가다리 배회어라.
〔대〕 줄을 내해있고
줄을 뒤해있고
〔해〕 부리 내해다마든
아사년 잊디 후있고.

〈梁柱東：增訂古歌研究，〔가〕〔해〕〔대〕는 筆者 附記〉

本歌의 배경 설화는 다음과 같다.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 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 風雨調於四時 於是大王遊開雲浦 王將還駕 笙歌於汀邊 忽雲霧冥暝 迷失道路 柰問左右 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 爲龍刹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龍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翫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歛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中略……時神現形 跪於前曰 吾妾公之妻 令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君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國人門帖處容之形 以辟邪進慶²⁸⁾

新羅 第四十九代 憲康王 때 東海龍子, 處容이 隨駕入京하여 王政을 보좌하는데 處容妻의 美貌를 탐한 疫神이 竊與之宿하므로 밖에서 들어온 處容이 보고 오히려 歌舞而退했더니 疫神이 感服하여 毒를 끊고 사죄했다는 설화인데 여기서 부른 노래가 <處容歌>이다. 배경설화 중에 “大王遊開雲浦 王將還駕 笙歌於汀邊 忽雲霧冥暝 迷失道路 柰問左右 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에서와 같이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나, “爲龍刹佛寺近境”의 佛寺緣起나, 麗代의 <處容歌>에서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大平 羅侯德”이라

28) 三國遺事 卷之二 紀異 第二 處容傳 巫海寺.

고 하여 羅侯를 든 것은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입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기록들이다. 또 梁柱東은 處容에 대해서

處容은 당초 一異樣人物로서 그 출현한 때가 日蝕直後임으로 당시엔 海東龍子, 後世엔 日蝕神 ‘羅曠’로 인정되었는데, ‘羅曠’는 一方 忍辱菩薩의 一인 羅曠羅와 관련됨으로 그의 忍辱密行으로서 例의 《三國遺事》所載 설화가 형성된 듯하다. 즉 疫神이 그의 妻와 同宿함을 보고 그는 오리며 歌舞而退하였다 할이 그 要領이다.²⁹⁾

라고 하여 處容을 忍辱菩薩로 보았다. 羅曠羅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胎中에 있기 6년만에 羅曠阿修羅王이 달을 障蝕할 때에 태어났으므로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다. 그는 出家한 뒤에 阿羅漢果를 이룬 10大弟子 중에 密行이 가장 뛰어난 忍辱의 菩薩이었다. 따라서 處容이 疫神에 대한 忍辱의 태도를 취한 것과 부합되는 것이다. 본가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교적인 관점³⁰⁾에서의 연구가 있는 한편 民俗學의인 관점³¹⁾에서의 연구도 활발하지만 筆者는 佛教의인 관점에 左袒하여 달의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忍辱菩薩의 處容이 당면한 현실문제는 무엇이며, 염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處容이 당면한 현실문제는 배경설화의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이라는 기록과 노래 가사중의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하는 내용으로 보아 ‘아내의 간통’인데, 이것은 <處容歌> 歌唱의 發想動機가 되고 있다. 반대로 處容이 염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아내의 간통’이라는 目前的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투쟁을 해서 결판을 내느냐 아니면 어차피 들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관용을 베풀고 忍辱하느냐 하는 두 방향으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前者는 ‘乃唱歌作舞而退’ ‘公不見怒’라

29) 梁柱東: 前掲書, p. 381.

30) 불교적인 관점의 연구는 梁柱東·金聖培·安自山·黃浪江 등에 의해서 이루어짐.

31) 민속학적인 관점의 연구는 李能和·金東旭·金容九·文容駿·金烈圭·李杜鉉·文相熙·徐大錫 등에 의해서 이루어짐.

는 엄연한 배경설화의 기록으로 보아 생각할 수 없으며, 이 기록은 가요의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라는 기록을 보아 後者, 즉 관용을 베풀고 忍辱하여 超脫하는 處容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處容이 아내의 간통사건 앞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受侮를 참고 초탈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唱歌作舞而退한 결과 疫神이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으로 보아서는 姦夫, 곧 疫神을 退治하는 것이 處容의 염원하는 바이었겠지만 그 이전에 目前的 受侮를 어떻게 참아내느냐가 더 급선무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인지도 모른다. 사실 아내의 간통사건 앞에서는 그 姦夫를 退治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로 夫婦의 관계를 지속하려면은 아내의 不貞을 눈감아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處容의 염원은 일차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인 超脫로 보고자 한다. 이리하여 <處容歌>는 아내의 간통이라는 현실과 이를 超脫하려는 자신에 대한 염원이라는 二元的인 의미구조 속에서 불리어진 노래이며, 이 염원을 달성한 결과, 즉 公不見怒한 결과 疫神까지도 굴복하게 됐던 것이다.

金鍾兩는 이 노래를 불교적인 의미로 요약 풀이하여, (가)는 龍이 활동하는 시간성을 표현한 것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키 위하여, 여기 ‘동경’이라는 장소도 들게 되었고 또 ‘놀고다녔다’ 하는 활동상도 첨가한 것이며, (나)는 곧 疫神과 處容의 妻가 나란히 누워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지만, 이 말의 後光에서 동기는 뜻은 허망한 疫神에 의해서 정복 당한 자기의 妻, 즉 熱病에 感染되어 呻吟苦痛하는 자기의 妻의 가련한 情狀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는 善惡 두 편이 서로 엉키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으며, (다)는 보통인으로서의 행할 수 없는 困辱을 참아,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六婆羅密 中의 一行인 忍辱의 道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마지막 (라)의 終句節에서는 빼앗긴 자기의 妻를 諦念하는 듯, 사랑하는 자기의 妻까지도 거침없이 疫神에게 施與함으로써 그를 완전히 감복시킨 것이라 하여 <處容歌

는 處容이라는 法行龍이 唱한 一種의 眞言이요 불교적인 呪文(多羅尼)이라고 결론지었다.³²⁾ 과연 보통의 남자라고 생각했을 경우 아내의 不貞을 눈앞에 두고 피가 逆流하는 듯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당장에 死生決斷을 내리는 격투가 벌어질 것이며, 또 아내마저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歌舞而退한 處容에 대해서 梁柱東은 불교적인 측면에서 忍辱菩薩로 설명했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지만, 이와는 달리 古代社會의 性道德과 연결시켜서 金圓卿은 原始社會로 올라갈수록 性이 개방된 채 母系中心的인 생활권을 형성했으리라는 것과 流浪하는 箕子族의 性 moral이 문란하듯이 遊牧생활을 했던 有史 이전의 우리 선조들에게도 亂婚풍습이 있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으로 설명했다.³³⁾ 金烈圭는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疫神과 處容妻의 交媾를 이상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이유로 女權社會에서 형성되는 남성심리로는 그 交媾는 오히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의당 그러리라고 諦念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과, medicine-shaman의 경우에는 疫神과의 交媾가 오히려 필요한 일일뿐더러 交媾가 있고서야 medicine-shaman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³⁴⁾ 어떠한 연유이든 희박한 정조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處容이 忍辱하여 초탈한 자세를 보인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님도 생각할 수 있다. 아물든 處容은 아내의 不貞이라는 현실문제를 忍辱하여 超脫해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가요의 의미구조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속에서 ‘서울 밝은 달’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한다. 본가의 달에 대해서는 별로 상징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풀이한 분³⁵⁾도 있지만 밝은 달밤에 處容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散在해 있는 것을 보면 <處容歌>의 달을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만 처리해 버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32) 金鍾雨: 鄉歌文學研究, pp.157~158, 二友出版社, 1978.

33) 金圓卿: 號容歌研究, 新羅歌謠研究(국어국문학연구총서 1), p.446, 정음사, 1979.

34)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p.256, 一潮閣, 1974.

35) 上揭書, p.294.

處容이 달밤에 활동한 여러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每月夜歌舞於市 竟不知其所在 時人爲神人 後人異之 作是歌³⁶⁾

新羅昔日處容翁 見說來從碧海中 貝齒敲唇歌夜月 寫眉紫袖舞春風³⁷⁾

滿天明月夜悠悠 東海神人下市樓 路闊可容長袖舞 世平宜掛百絃遊³⁸⁾

地勝仙遊密 雲開世路通 依稀羅代雨仙翁 曾見畫圖中 舞月婆娑白 簪花爛熳紅 欲尋遺跡春難窮 須喚半帆風³⁹⁾

憲康王出遊 至顯雲浦 有異人奇形詭服 歌舞讚德 從王入京 自號處容 王以美女妻之 又賜爵 每月夜歌無 竟不知所在⁴⁰⁾

上記의 기록과 같이 處容은 달이 밝은 밤에 활동했으며, 歌舞한 장소로는

月明巷在金城南……處容每月夜歌舞於市……其歌舞處 後人名爲月明巷……⁴¹⁾

이라고 하여 金城 남쪽의 月明巷(月明里)이며 이곳에서 每月夜에 處容이 歌舞했다는 것은 <處容歌>의 달은 물론 處容과 달의 相關性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따라서 달도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金聖培는 <處容歌>의 달에 대해서

처용은 그런 인간적인 노여움 이전의 보살행을 기원한 용자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處容歌>의 끝 두 귀의 해독은 마땅히 피부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색상계를 초월한 보살의 無量慈悲의 경지에서 보아야 한다. ‘되얏긴 억울할 · 꾀셈함’을 되씹는 인간형이 아니라, 색상을 넘어, 見性하는 보살의 자리에서, 미녀를 흠모하는 나머지 ‘寤與之宿’한 역신이 六道의 교토에서 아직도 깨달음과는 먼 경지를 가없이 여긴 ‘아수늘 엇디안릿고’ 여야

36) 高麗史 卷七十一 樂二 俗樂.

37) 金賚亂撰 卷之四 小築府.

38) 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一 慶州府 奉恩.

39) 窓亭集 卷之二十.

40) 大東國府群玉 卷之一.

41) 東京雜記 卷之二 古蹟.

한다. 따라서 〈處容歌〉 첫대문의 발상계가 된 ‘달’은 일반적으로 불교가 가지는 달의 이미지와 통하는 것이다.⁴²⁾

라고 하여 불교적인 의미의 달임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서울 밝은 달 밤이 아니고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處容은 ‘阿彌陀佛의 化身’ ‘圓融한 法身’을 상징하는 달의 無量光을 받으며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온 忍辱菩薩이며 法行龍이다. 凡夫라 할지라도 휘영청 밝은 달의 無量光을 받으며 歌舞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둥근 달처럼 원만해질 수 있으며 원만한 일에는 관용을 베풀어 초탈한 자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적인 處容에게 法身을 상징하기도 하는 달이 밝게 비치는 상황에서야 아내의 간통사건을 보고서 忍辱 초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달의 의미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곧 〈處容歌〉의 달은 아내의 간통이라는 현실과 초탈이라는 염원의 관계에서, 處容이 이러한 현실문제를 초탈하는데 매개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래 속에서 현실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고 있는 語辭는 ‘가르리 네히어라’ ‘아수늘’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염원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는 것은 ‘엇디흐릿고’와 ‘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르리 네히어라’ ‘아수늘’ 등은 아내의 간통을 표현해 주는 말들이며 ‘엇디흐릿고’와 ‘달’은 관용을 베풀고 忍辱하여 초탈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들이다. 그러던 현실과 염원의 관계에서 달이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아내의 간통이라는 현실은 處容의 法心과 〈處容歌〉로 인하여 초탈한 다음으로 극복되고 있으며, 가요 속에 등장하는 달은 아내의 간통이라는 현실과는 相反된 관계로 있으며 초탈이라는 염원과는 관념적인 동조는 물론이요, 적극적인 지향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관용하여 초탈함의 달로, 즉 불교적인 해탈의 형상으로 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아내의 간통으로

42) 金聖培：韓國佛敎歌謠의 研究，pp.36~37，문창사，1973.

인한 處容의 평범한 인간적인 노여움이 佛心에 의하여 초탈의 상태로 극복되는 데에 주요한 質體의 하나로써 작용하는 것이 <處容歌>의 달이라고 생각한다.

3) 請轉法輪歌의 달

《均如傳》所載 <普賢十願歌> 중 <請轉法輪歌>에 나오는 달도 佛敎的인 의미의 달임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彼仍反隱

法界惡之心佛會阿希

吾焉願吃蓮良只

法雨乞白乎吃等耶

無朋士深以堦多

煩惱燕窩煎將來出米

善芽毛冬長乙隱

衆生叱田乙潤只沙啣也

後言 菩提地菓音鳥乙反隱

從月明丘秋察羅波處也

더 너분

法界악심 佛會 아희

나는 초 나학

法雨를 비슴보다라

無朋士 기피 무다

煩惱燕窩 다려 내매

善芽 물결 길은

衆生스님을 지저삼의

아음 菩提스 이름 오음보

從月명진 구름 바티역

〈梁柱英：增訂古歌研究〉.

먼저 이 노래와 관련되는 《華嚴經》의 기록을 보면

復次密男子 言請轉法輪者 所有盡法界處空界 十方三世一切佛刹極微塵中 一一各有不可說不可說佛刹極微塵數廣大佛刹 一一刹中念念有不可說不可說佛刹極微塵數 一切諸佛成等正覺 一切菩薩海會圍繞而我悉以身口意業種種方便 懇勤勸請轉法輪 如是虛空界盡 衆生業盡 衆生煩惱盡 我常動請一切諸佛轉正法輪 無有窮盡 念念相續 無有間斷 身口意業 無有疲厭⁴⁵⁾

이라고 하여, 이것은 普賢菩薩이 說해 놓은 10종의 願文 중에서 여섯 번째인 請轉法輪願인데, 均如大師는 이 願文의 大意를 제재로 하여 <請轉法輪歌>를 지었던 것이다. 《華嚴經》의 기록을 보면 等正覺을 성취할 일체의 諸佛에 대해서 身口意, 즉 몸가짐과 말과 정신이라고 하여 일상생활의 도

45) 華嚴經 卷之四十 普賢行願品.

든 행위의 여러가지 방편으로써 은근히 妙法輪을 전할 것을 勸請하려는 誓願이니 결국은 正覺을 염원하고 있다. 또 《均如傳》에 그 序文을 쓴 崔行歸의 漢譯을 보면 다음과 같다.

佛陀成道歎難陳
我願皆趨正覺因
甘露酒消煩惱熱
戒香熏滅罪愆塵
陪隨善友瞻慈室
勸請能人轉法輪
雨寶遍沾沙界後
更於何處有迷人

부처의 成道한 것은 수로 헤아리기 어려우니
나의 소원 모두 正覺에 나아갈 인연입니다.
甘露를 뿌려서 번뇌의 열을 식히고,
戒香을 맡아서 죄와 허물의 티끌을 밀하오리다.
善友를 따라 모시어 慈室을 우러르고,
능한 사람을 권해 청해서 법문을 들립니다.
보배 비를 주어 두루 사바세계를 적신 뒤면
다시 어느 곳에 혼미한 사람이 있사오리까.

〈均如傳 譯歌現德分：李丙熙 譯 均如傳 p. 15〉

“我願皆趨正覺因”과 같이 나도 부처님을 따라 正覺을 바라고 있으며 가요의 내용을 보더라도 敎化와 說法으로 菩提를 성취하는 正覺을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請轉法輪歌〉에서 염원하는 것은 ‘正覺’이며 반대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無明과 煩惱의 열기로 善芽가 못 돋는 ‘중생의 마음’이다. 이러한 현실과 염원의 구조 속에서 본가는 어떠한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나는 저 넓은 法界의 부처님이 계시는 앞에 나아가 法雨를 빌어 善의 싹을 기르지 못하는 衆生의 心田을 젖도록 하여 正覺을 얻게 되면 그것은 覺月의 豐盛한 가을밭의 열매와 같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곧 善行을 닦지 못하고 있는 중생을 濟渡하고자 하는 發願을 노래했던 것이다. 李在銑은 〈請轉法輪歌〉에 대해서

이것은 거의 畵的으로 비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흙·熱·이삭·밭·열매 등의 이미지 패턴으로 짜여 있는 것이다. 가위 以比而達其情의 경지 그것인 것이다. 佛法이 衆生을 敎化하고 德化한다는 主旨를 不毛의 땅에 내리는 비로 표상하고, 正覺의 경지를 또한 풍요한 가을밭의 이미지로 물고 가는 것이다. ……中略……그리고 종교적인 抽象의 상태가 이와 같은 具象의인 형상을 借用하여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즉 法雨·無明土·煩惱熱

26)…東岳語文論集 第十八輯

·善芽·衆生叱田·覺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無明·煩惱·善·覺 등의 佛敎의인 觀念의 표현이 具象의 및 感覺의 형태로 轉化함으로써, 이러한 具象化는 想像의인 心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⁴⁶⁾

라고 하여 全의으로 以比而達其情이며, 法·無明·煩惱·善·覺 등의 불교적인 觀念의 표현이 具象의 및 感覺의 형태로 轉化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노래는 法輪, 곧 佛陀의 敎化와 說法을 칭하는 노래로써 佛法이 衆生을 敎化하고 德化한다는 主를 불모의 땅에 내리는 비로 表象하여 그것이 가을의 무르익은 결실의 장면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가요의 전체적인 의미구조는 증생의 마음을 벗어나 正覺을 이루고자 염원하는 의미를 이루고 있으며, 현실인 증생의 마음에 觀念적인 동조를 이루는 語辭는 ‘無明土’ ‘煩惱熱’ ‘衆의 발’ 등이고 염원인 正覺과 觀念적인 동조를 이루는 것은 ‘法界’ ‘佛會’ ‘法雨’ ‘善芽’ ‘깨달음의 열매’ 등과 ‘覺月’이다.

달과 같이 밝은 마음을 ‘心月’이라고 하듯이 覺月은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빛, 곧 깨달음의 밝음을 달에 비유하여 이른 달인데, 여기서 月이 밝음의 의미와 일치하고 있다. 밝음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증생의 어둠을 벗어난 상태이니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를 의미한다. 또 달은 증생의 마음이라는 현실과는 相反된 관계를 이루고 正覺이라는 염원을 지향하며 法界·佛會·法雨·善芽·깨달음의 열매·가을밭 등과 觀念적인 동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대인들은 달을 해탈의 형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4)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事의 달

讚曰天粧滿月四方裁
地湧明空一夜開
妙手更煩彫萬佛
眞風要使遍三才⁴⁷⁾

하늘은 단월을 단장시켜 四方佛을 다려냈고
땅은 明空을 솟구어 하룻밤새 열렸도다.
교묘한 솜씨로 다시 萬佛을 새겼으니
부처님의 풍도란 三才에 두루 퍼지게 하라.

46) 李在諤: 新羅鄉歌의 語法과 修辭, 鄉歌의 語文學의 研究, pp.180~181, 西江大人文學科 研究所, 1975.

47) 三國遺事 卷之三 瑞像 第四 四佛山 紅佛山 萬佛山.

景德王이 柏栗寺에 거동해서 산 밑에 이르렀더니 땅 속에서 엿붙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명령해서 파게 하니 큰 돌이 있는데 四面에 四方佛이 세겨져 있었다. 아에 대한 讚에서 하늘이 滿月을 단장시켜 四方佛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滿月은 부처의 원만한 얼굴에 비유되고 있다. 이렇게 滿月을 法顔에 비유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고대인들의 달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인격적인 의미에서 깨달은 자, 해탈자의 형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臺山五萬眞身>條에서도

一日同上五峯瞻禮次 東臺滿月形山 有一萬觀音眞身現在 南臺麒麟山 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 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北臺象王山 釋迦如來爲首 五百大阿羅漢 中臺風盧山亦名地盧山 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⁴⁸⁾

라고 하여 滿月山은 觀音菩薩, 麒麟山은 地藏菩薩, 長嶺山은 大勢至菩薩, 象王山은 大阿羅漢, 風盧山은 文殊菩薩에 각각 관련을 시켜 滿月은 觀音菩薩의 眞身に 비유되고 있다. 이와 같이 古代人들은 둥근 달을 菩薩의 얼굴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서 해탈의 형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溟州五臺山 寶叱徒太子傳記>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五臺進敬禮拜 青, 在東臺滿月形山 觀音眞身一萬常住 赤, 南臺麒麟山 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菩薩常住 白, 方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菩薩常住 黑, 掌北臺象王山 釋迦如來爲首 五百大阿羅漢常住 黃, 處中臺風盧山 亦名地盧山 毗盧遮那爲首 一萬文殊常住⁴⁹⁾

여기서도 滿月形山에는 觀音眞身一萬이 常住하므로 滿月은 觀音菩薩의 眞身に 비유되고 있다. 둥근 달이 法身으로 관념되거나 觀音菩薩로 관념되거나 이러한 發想은 古代人들의 눈에 圓融의 형상과 光明으로 인하여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불교의 경지, 즉 해탈의 형상으로 관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歸竺諸師>條의 讚에서도

48) 三國遺事 卷之三 塔像 第四 臺山五萬眞身.

49) 三國遺事 卷之三 塔像 第四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讀曰天竺天遙萬疊山
可憐遊士力登攀
幾回月送孤帆去
未見雲蹤一杖還⁵⁰⁾

天竺의 먼 길은 만첩 산인데
가련다 힘써 올라가는 遊士들이여
몇 번이나 저 달은 의로운 배를 보냈는가?
구름 따라 돌아오는 것 보지 못했다.

라고 하여 달이 등장한다. 이것은 新羅의 증 阿離那跋摩가 正敎를 구하러 中國에 들어갔다가 聖蹟을 巡禮하려는 응기가 나서 貞觀年間(627~649)에 五天(印度) 那蘭陀寺에서 修道中 故國에 歸心이 痛切하던 증 入寂했으며, 뒤를 이어 惠業·玄泰·求本·玄恪·惠輪·玄遊 등도 中天竺에 갔으나 마침내 新羅와 唐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설화에 대한 讚이다. 여기서 “幾回月送孤帆去”의 달은 西方과 觀念的인 동조를 이루고 있으며 의로운 배를 수차례나 띄워 보냈던 그런 佛法의 달이다. 得道의 어려움·해탈의 어려움이 달의 이미지에 투하고 있다. <眞身受供>條의 讚에서도 불교적인 의미의 달을 찾을 수 있다.

讀曰燃香鄴佛看新給
辨供濟僧喚蒼知
從此琵琶嶺上月
時時雲掩到深潭⁵¹⁾

향을 사르고 부처님을 가려 새 그림을 보았고
음식 받들어 중을 대접하고 몇 천구 산냈네.
이로부터 비파암 위의 달은
때때로 구름에 가려 못이 더디게 비치리.

唐帝室의 복을 받들러 孝昭王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望德寺를 세웠고 八年 丁酉(孝昭王 6년)에 落成을 열고 孝昭王이 친히 가서 공양하는데 남루한 모습의 比丘가 齋에 참석하기를 청하여 末席에 참여하게 했다. 齋가 끝나고 王은 比丘를 희롱하여, 이제 가거든 다른 사람에게 國王이 친히 佛供하는 齋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 比丘가 웃으면서 폐하께서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眞身釋迦를 供養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湧身凌空하여 남쪽으로 향해 갔다. 王이 驚愧하여 比丘의 자취를 찾게 하니 南山參星谷 혹은 大磧川源이라는 돌 위에 지팡이와 바리때

50) 三國遺事 卷之四 義解 第五 歸竺諸師.

51) 三國遺事 卷之五 感通 第七 眞身受供.

를 놓고 숨어버리니 王이 釋迦寺를 琵琶岩 밑에 세우고 그 자취가 없어진 곳에 佛無寺를 세웠다는 설화의 讚이다. “從此琵琶岩上月 時時雲掩到潭遲”의 구절은 설화의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雲은 세속적인 것, 潭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달은 부처 또는 佛法 등을 의미하고 있다. 달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은 결국 고대인들의 눈에는 해탈의 형상으로 간고된 달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 不變하는 존재

1) 怨歌의 달

物叱好支拍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阿叱沙矣以支如支
 兒史沙叱望阿乃
 世理都之叱逸鳥隱第也
 後句亡

(가) 「물의 잣(柏)이 가을에 안 이물어지며 너를 어찌 잊어?」 하신 우월던 낮이 제시온데
 (나) 달 그림자가 옛 붓의 가는 물결 원망하듯이 열줄사 바라보나 누리도 싫은지교?

〈梁柱東：增訂古歌研究，(가)(나)는 筆者 附記〉

本歌의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다.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基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旣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 賜賜綠 栢樹乃蘇歌曰…
 …中略……由是寵現於兩朝⁵²⁾

新羅 三十四代 孝成王이 潛邸時에 信忠에게 훗날 卿을 잊지 않을 것을 잣나무에 맹세했으나 孝成王이 即位 후에도 忘忠而不第之하므로 信忠이 원망의 뜻을 품고 노래한 것이 <怨歌>이며 이 노래를 잣나무에 붙였더니

52) 三國遺事 卷之五 避隱 第八 信忠掛冠.

잣나무가 누렇게 시들어 孝成王이 보고 크게 놀라 悔改하고 信忠에게 爵祿을 내리니 잣나무가 蘇生했다는 설화이다. 본가도 해독상·성격규정에 있어서 諸家間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해독은 前記한 바와 같이 梁柱東說에 專依하기로 했으며, 성격규정에 있어서는 呪歌⁵³⁾, 祈禱呪詞⁵⁴⁾, 儒敎의인 노래⁵⁵⁾, 佛性歌謠인 神呪⁵⁶⁾, 순수 서정시⁵⁷⁾ 등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作歌者의 堯堯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囹圄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有如栢樹……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에서와 가요의 “얼굴사 바라보나 누리도 싫은지고”에서와 같이 孝成王이 잣나무 아래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 주기를 바라는 ‘孝成王의 불변’을 堯堯하고 있으며 현실의 당면문제는 반대로 ‘孝成王의 변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堯堯의 구조 속에서 달은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에서 뜰의 잣나무는 四時常靑으로 인하여 그 속성은 貞節·不變·永遠 등을 의미하므로 歲寒後凋를 말한다. 시들어 떨어지지 않음은 누구나 경험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실이다. 가을의 서리와 嚴冬의 혹한에도 常靑하는 잣나무의 정절처럼 孝成王도 잣나무 아래에서 他日에 信忠를 잊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리하여 높이 우러러 보던 날, 곧 孝成王이 계시온데라고 하여 무엇인가 여의하지 않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가)의 전체적인 의미구조는 信忠에 대한 孝成王의 잣나무와 같은 맹약이다. 그리고 그 맹약은 자신의 맹세가 잣나무의 常靑처럼 堯堯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他日忘卿이면 有如栢樹이리라고 한 것은 卿의 忘却이라는 변심이 곧 나무의 변화에 직결되리라는 것도 아울러 함축하고 있다. 信忠과 孝成王이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면서 한 맹세는 불변·貞節·永遠 등을 의미하는 잣나무에 契約되어 있다. (나)에서는 孝成王이 信忠에게 한 맹세가 이미 깨어졌음을 말해

53) 林基中：前掲書，p. 267.

54) 金東旭：前掲書，p. 32.

55) 金鍾雨：前掲書，pp. 171~175.

56) 金聖培：前掲書，p. 38.

57) 李在號：前掲論文，p. 149.

준다. 달그림자가 연못의 흘러가는 물결을 원망하고 있다. 맹세가 지켜져야 하는데 지켜지지 못한 현실을 哀痛해 하고 그 애통함은 맹약을 어긴 장본인, 孝成王에게 원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옛날 약속할 때는 물결도 흐르지 않아 달의 그림자도 명료하게 투영되어 있었으며 축복을 내리고 있었는데, 孝成王이 맹세를 저버린 지금은 물결이 흐르고 있어 달그림자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곧 달을 信忠 자신으로 보고 물결을 孝成王에 비유하여 孝成王의 변심을 나타내고 있다. 龍顏이야 바라볼 수 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싫다는 말이다. 배신 당한 감정을 자연의 이치와 세상사에 교묘히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의미는 孝成王의 맹세가 물결이 흘러가듯 변해 버렸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변심을 달은 애달파 하고 있으며 이어서 원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에서와 같이 孝成王의 잣나무와 같은 맹약이 지켜지기를 염원하고 있으나 이미 孝成王의 맹세는 깨어졌으니, 변한 마음이나마 다시 돌이켜 주기를 바라는, 즉 孝成王의 변심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여 孝成王의 불변을 염원하는 것으로 노래의 전체적인 의미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孝成王의 변심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는 語辭는 ‘가는 물결’ ‘누리’ 등이며 孝成王의 불변이라는 염원과 동조를 이루는 것은 ‘잣’과 ‘달’인데 여기서 달은 연못의 가는 물결을 원망하여 孝成王의 변심을 불변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質體로서도 작용한다고 본다.

孝成王의 변심이라는 현실은 信忠의 <怨歌>에 의해서 孝成王의 改心인 불변의 상태로 극복이 되는데 달은 노래의 의미구조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孝成王의 변심과는 상반된 관계를 이루며, 잣나무와는 관념적인 동조는 물론이요, 孝成王의 불변이라는 염원을 지향한다. 여기서 달은 불변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井邑詞>의 달에서도 불변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인식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井邑詞>는 百濟에서부터 口傳되어 내려온 民間傳承의 가요로 朝鮮朝에 들어와서 정착된 작품이다. 高麗歌謠로 취급하려는 학자들도 많지만 百濟歌謠라는 文獻上的 기록이 없었으므로 新羅歌謠와 동시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같이 다루기로 한다. 《樂學軌範》 卷之五에 전하는 <井邑詞>를 보기로 한다.

- | | | | |
|-----|---|-----|---|
| (가) | { | 前腔 | 얼하 노피곰 도드사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
| | | 小葉 | 아으 다롱디리 |
| | | 後腔全 | 적계 너리신고요
어기야 촌디를 드림을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
| (나) | { | 過篇 | 어느이다 노보시라. |
| | | 金尊調 | 어기야 내 가늠 리 걸그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
| | | 小葉 | 아으 다롱디리 |

<전세에는 樂卷 附記>

이 노래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井邑全州屬縣 縣人爲行商久不至 其妻登山石以望之 恐其夫夜行犯害托泥水之汚以歌之 世傳有登站望夫石云……⁵⁸⁾

望夫石 在縣北十里 縣人行商久不至 其妻登山以望之 恐其婦夜行犯害 托泥水之汚以作歌 各其曲曰井邑 世傳登站望夫石 足跡猶也.⁵⁹⁾

라고 하여 “恐其夫夜行犯害 托泥水之汚以歌之”라는 부분을 중시하여 본다면 行商 나가서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泥水之汚에 의탁해서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노래에 대해서는 《高麗史》의 기록처럼 본 가요를 남편이 밤길에 도둑의 활물 입지 않음까지 걱정하는 내용, 즉 부부운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가요라는 설⁶⁰⁾과 본 가요가

58) 高麗史 卷七十一 樂志二.

59) 東國輿地勝覽 井邑古跡.

60) 梁柱東：麗謠箋注, p. 61, 乙酉文化社, 1947.

中宗代에 男女間淫詞라는 이유로 宮中樂에서 폐기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멀리 行商 나간 남편이 花柳巷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女人의 질투심을 표출한 가요라는 설⁶¹⁾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모든 것이 노래 가사 중의 ‘즌 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좌우되는 문제이겠지만 두 說을 作歌(歌唱)者의 염원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前者는 도둑의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남편의 무사를 빌었고 後者는 花柳巷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남편의 무사를 빌었다. 특히 後者는 가요의 ‘즌 더’를 진흙구멍으로 해석하지 않고 花柳巷으로 해석했으며 ‘내 가는 더 점그를세라’를 나의 가는 곳에 어두워질까 두렵구나라고 하여 자기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을 염려한 것이란 면을 생각해 보면, 남편의 무사보다는 자기 앞날의 무사를 빈 것이 되겠으나 자신의 앞날의 무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둑에 대한 것이든 花柳巷에 대한 것이든 남편이 아무런 일도 없이 무사히 歸家하여 행복하게 사는 일, 곧 ‘不變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前者나 後者나 作歌(歌唱)者의 염원은 ‘不變의 사랑’임을 알 수 있고 반대로 현실에 부딪힌 문제는 ‘不安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과 염원의 구조 속에서 달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에서는 자연을 신비적인 것으로 알고 敬畏하던 百濟의 어느 行商人의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무사를 달님에게 부탁하는 뜻으로 달에 대한 呼稱과 함께 높이 돌아서 멀리 비치어 남편이 오는 길이 어둡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오직 남편만을 하늘같이 믿고 불변의 貞節을 바친 ‘아낙네의 후시나 하는, 남편에 대한 不安이 달에 대한 호소로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머리뿔 비취우시라’는 남편이 있는 곳을 비추어 달라는 詞意이니 여기서 달빛은 아내가 登山石而歌之하며 애절하게 남편만을 생각 하고 무사히 귀가하기를 비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며 달은 天上의 증개자인 것이다. (나)에서는 남편에 대한 不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진

61) 池憲英：鄉歌麗謠新釋，p.60，正音社，1947.

쿠령을 밟으실까 두렵다는 밤길의 위험이 나타나 있으며 ‘즌 덕’를 花柳巷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이렇게 불편하는 사랑으로 당신만을 생각하고 忘操를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花柳巷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는 자신의 不安·焦燥가 절절히 있다.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은 朴堧上의 妻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初堧上之妻云也 夫人聞之追不及 及至望德寺門南沙上 放臥長號 因名其沙曰長沙 親戚二人 扶腋將還 夫人舒脚 坐不起 名其地曰伏知旨 久後夫人不勝其慕 率三娘子上鵝述嶺 望倭國痛哭而終 仍爲鵝述神母 今祠堂存焉.⁶²⁾

望德寺門 남쪽 沙場 위에서 주저 앉아 목이 찢어져라 하고 부르짖다가 마침내는 세 딸을 데리고 鵝述嶺에 올라가 鵝述嶺神母가 되어 버린 朴堧上의 아내가 倭國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不安과 焦燥도 있는데 <井邑詞>의 不安과 同軌를 이룬다. (가)(나)를 함께 연결시켜 詞意를 開陳한다면 (가)와 (나)의 순서를 바꾸어서 그 뜻은 “시장에 가게 시는 남편께서 돌아오시다가 진쿠령(또는, 花柳巷)을 밟으실까 (또는, 디디고 있을까) 두렵우니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돌아 멀리 비쳐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달은 불편하는 부부애의 인도자요, 감독자인 것이다. (다)에서는 밤길이니 집 따위는 어느 것도 필요없고 오직 당신이 오시는 길이 저물까봐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行商人으로서의 집이라는 것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든이나 생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서 부부간의 행복, 즉 불편의 사랑을 유지하는 일이다. (가)에서 行商人의 아내가 달에 訴託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池憲英說에 의해서 이 부분을 풀이한다면 어느 여인에게다 마음을 두고 있기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한숨의 토트가 되고 마지막에서는 남편을 빼앗긴 나의 앞날에 불행과 어둠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여 평범한 아내애의 질투심을 나타낸다. 결

62) 三國遺事卷之一 紀異 第一 奈勿王朴堧上.

국 달에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원인데 여기서 우리는 형상인의 아내의 기원하는 바,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志操있는 사랑을 달에게 訴託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을 訴託했다는 것은 고대인들이 달을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불안한 사랑이라는 현실과 관념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은 ‘저저’ ‘즌덕’ ‘점그를세라’ 등이며 불변의 사랑이라는 영원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는 語辭는 ‘달’인데 이 달이 현실과 영원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달은 불안한 사랑과는 相反된 관계이며 불변의 사랑과는 관념적인 동조는 물론이요, 현실극복의 質體로써 작용한다. 여기서 달은 불변하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파악될 수 있다. 行商人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안한 사랑의 마음을 <井邑詞>를 통해서 등실 떠서 언제나 변함없는 존재로 인식된 달에게 자기도 마찬가지로 돼 달라는 의미로 訴託하고 哀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百濟歌謠인 <井邑詞>의 달도 <怨歌>의 달처럼 不變의 존재, 영원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고대인의 달에 대한 인식의 一面을 찾아 보았다.

4. 高濶한 人品

1) 讚耆婆郎歌의 달

咽鳴兩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子浮去懸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矣兒史是史薇那
逸鳥川理叱躋惡希
郎也持以支如賜鳥隱
心未際叱脩逐內良齊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多乃乎戶判刈也

(가) 열치매
나라난 달이
흰구름 쫓아 떠감이 아니야?
새파란 내에
耆郎의 모습이 있어라?
(나) 이로 냇가 조약에
郎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파져
(다) 아요, 갖가지 드높아
서리를 모르는 花郎長이여!

<梁柱京: 增訂古歌研究, (가)(나)는 筆者 附記>

出의 ‘달’과의 問答體를 빌어와 前八句에서 그것을 은연중 暗喻 傍叙하고, 結二句에서 ‘갓가지’를 빌어 그것을 正叙했다.”⁶⁸⁾ 忠談師는 耆婆郎의 실제적으로도 높은 인품을 더욱 찬양하고 追隨하여 耆婆郎의 드높은 인격과 理想·志操, 즉 高邁한 인품으로서의 格上和 자신의 追隨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歌의 作歌者의 염원은 ‘耆婆郎의 高邁한 인품’이며 현실적인 상황은 ‘耆婆郎의 평소의 인품’인데 다른 노래에서처럼 현실과 염원의 관계가 相反되지 않고 關聯적인 동조를 이룬다는 점이 특색이며, 이것은 讚歌의 의미구조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과 염원의 의미구조 속에서 달은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에서는 구름장막을 열어 짓히며 등뚜렛이 나타나는 달아, 너는 흰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달과 구름을 놓고 볼 때 달은 밝게 비치고 구름은 등실 때 가는 모습인데 달이 변전을 뜻하는 구름을, 변화무쌍한 구름을 追隨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이므로, 심도 있는 표현을 위해서 집짓 던져보는 수법이다. (나)의 내용을 보더라도 구름의 의미는 理想的인 존재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 의문형으로 종결하고 있으니 달이 구름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示唆해 준다. (나)에서는 새파란 냇가에 耆婆郎의 모습이 있는데 이 郎이 평소 지녔던 마음의 끝, 곧 高邁한 인품을 따르다고 대답한다. “새파란 내에 耆郎의 모습이 있어라”는 냇물 속에 투영된 달 그림자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의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 위해 제시되는 귀절이다. 또 이것은 맑고 푸른 냇가에 드높은 인품을 지닌 耆婆郎이 의연한 자세로서 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달은 이렇게 냇가 조약돌에 耆婆郎이 평소 지녔던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약돌의 원만하고 매끄러움은 그대로가 달관의 경지요, 높은 인품을 의미한다. (가)(나) 속에서 “달은 <나> 속에 永續하는 耆郎의 존재를 찬양하기 위한 정조의 표현을 위한 은유적 대상

68) 梁柱東：前掲書，pp. 885～886.

으로 注目해야 할 것이다.”⁶⁹⁾ 文面에 나타난 것은 달이 翫婆郎의 마음의 끝, 곧 고매한 인품을 追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翫婆郎이 지녔던 곳인 ‘넷가’ ‘조약’ 등은 翫婆郎의 인품을 상징해 주는 말들인 동시에 翫婆郎으로 은유된 ‘달’도 또한 翫婆郎의 인품을 상징해 주는 말이다. 결국 (가)(나)의 의미구조는 달이 내·조약으로 상징되는 翫婆郎의 마음의 끝을 追隨하는 것이다. (다)는 結詞로서 서리와 같은 악조건에도 구애 받지 않고 굳굳한 기상을 그대로 간직하는 잣나무에 翫婆郎의 인품을 비유하면서 끝맺는다. 常情으로 인하여 불변·貞節 등을 의미하는 잣나무는 凋落과 殺戮을 재촉하는 서리가 내려도 아무런 등요없이 굳굳한 것처럼 의부의 어떠한 시련과 도전에도 의연한 인품을 지닌 翫婆郎이다. (다)의 ‘잣’도 결국은 翫婆郎의 인품을 비유하면서 달이 追隨하는 대상이 되며 서리와는 대립을 이룬다. 이상과 같은 의미구조에서 翫婆郎의 高邁한 인품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내’ ‘조약’ ‘잣’ 등과 ‘달’인데, 달은 고매한 인품과의 관념적인 동조는 물론이요, 내·조약·잣 등으로 나타내지는 翫婆郎의 마음의 끝을 追隨하므로써, 翫婆郎을 은유하기도 한 달은 翫婆郎의 인품을 찬양하는 데에 적극적인 質體로써 작용한다.

달은 평소의 인품이라는 현실과 相反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은유적·동조적인 관계를 이루어, 다시 고매한 인품이라는 염원을 지향하므로 증개자인 달의 의미는 내·조약·잣 등으로 상징되는 고매한 人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翫婆郎의 평소의 인품, 곧 忠談師의 마음 속에 永續하는 翫婆郎의 존재는 노래 속에서 달이 翫婆郎의 인품을 追隨하므로써 더 높이 찬양되고 있는 것이다.

2)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事의 달

眞德女王的 〈致唐太平頌〉에서도 달이 높은 인품에 비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眞德女王이 王位에 오르자 손수 지어서 비단을 짜서 그 가사로 무릎을 놓아 사신을 시켜 唐에 바쳤다는 〈致唐太平頌〉을 보기로 한다.

69) 李在鎭: 前掲 論文, p. 169.

大 唐 開 洪 業
 巍 巍 皇 猷 昌
 止 戈 戎 威 定
 修 文 契 百 王
 統 天 崇 雨 施
 理 物 體 舍 章
 深 仁 諧 日 月
 撫 運 邁 虞 唐
 幡 旗 何 赫 赫
 錚 鼓 何 鏗 鏘
 外 夷 違 命 者
 剪 覆 被 天 殃
 淳 風 凝 幽 現
 遐 邇 競 呈 祥
 四 時 和 玉 燭
 七 曜 巡 萬 方
 維 嶽 降 輔 宰
 維 帝 任 忠 良
 五 三 成 一 德
 昭 我 唐 家 皇

큰 업적 개척한 큰 당나라
 우람스런 다스림 힘차게 뻗네.
 군복으로 천하를 안정시켰고
 왕통을 이어받아 문화를 막아
 하늘을 받들어 雨施를 베풀고
 만물을 거느려 舍章을 본뵈네.
 어질어 해와 달에 화합이 되고
 운행을 살피서 태평을 이끄네.
 찬란히 빛나는 깃발들이여.
 군악소리 저다지 웅장하다니
 오랑캐들 명령을 어긴다며는
 하늘의 화를 입어 망하고 말고.
 서울과 시골이 風化 어리고
 원근이 다투어서 상서 바치네.
 사시에 밝은 정치 고루 베풀고
 七曜처럼 단방을 돌고 도주나.
 때뵈리로 태어난 재상들이며
 임금은 어진 이만 뽑아 쓰시네.
 三皇五帝 함께 뭉쳐 一德이 되니
 우리 황실 길이길이 빛나오리라.⁷⁰⁾

여기서도 ‘深仁諧日月’이라고 하여 唐皇帝의 깊은 仁德을 日月에 비유하고 있으며, 事大交隣의 거룩함이 응축을치는 내용이다. ‘巍巍皇’ ‘統天’ ‘淳風凝幽現’ ‘維帝任忠良’ ‘五三成一德’ ‘昭我唐家皇’ 등의 唐을 찬양하는 모든 語辭들은 皇帝의 高邁한 仁德과 관념적인 동조를 이루는 것이다. 어질어 해와 달에 화합이 되니, 달의 의미도 高邁한 人品으로 파악된다.

《三國遺事》의 〈前後所將舍利〉條의 讚에서도 달에 인품을 비유하고 있다

大宋元祐甲戌 有人眞讚云
 偉哉初祖巍乎眞容

거룩하다, 開祖스님 궤어나신 그 모습

70) 李丙時: 거북아 거북아(古典의 故策①), 月刊文學, pp.234~235, 1980. 1月號.

再至吳越大藏成功	두 번이나 吳越에 가 大藏經을 가져 오셨네.
賜御普耀鳳詔四封	普耀란 직함을 주시고 詔封한 四境에 내리시니.
若問其德白月清風 ⁷¹⁾	그의 덕을 묻거든 白月清風과 같다 하겠도다.

新羅 末期에 두 번이나 吳越에 가서 大藏經을 싣고 와 海龍王寺의 開山祖가 된 普耀禪師의 眞影을 讚한 것이다. 이러한 禪師의 德을 ‘白月清風’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달의 의미도 普耀禪師의 높은 人品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讚耆婆郎歌>의 달, <致唐太平頌>의 달, <前後所將舍利>條의 달이 高邁한 人品에 비유되고 있음을 보았다. 古代人들은 동그런 天上의 달을 보고서 그네들의 이상적인 人品을 그려보았던 至純한 사람들이었다.

Ⅲ. 結 語

이상에서 新羅歌謠에 나타난 달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여 보았다. 고대인들은 가요를 超自然的·呪術의인 힘으로 생각했던 나머지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하고 有害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적절하고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성취하기 위해 作歌 또는 歌唱을 하였다. 곧 作歌(歌唱)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현실과 冥원이라는 二元的인 대립 속에서 作歌 혹은 歌唱하므로써 현실을 극복하고, 冥원하는 상태로 끌어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가요에 등장하는 달의 의미를 고찰하였던 바, 不吉하다고 믿는 彗星이 나타났을 때는 달의 존재를 강조하여, 즉 달의 상서로움을 강조하여 彗星을 물리쳤으며, 《三國遺事》所載의 其他 紀事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달을 찾아 보았다.

다음에는 極樂往生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를지

71) 三國遺事 卷之三 塔像 第四 前後所將舍利.

라도 달만은 알고 西方淨土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염원을 달에 託託했으니, 달님이 西方을 자유왕래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달 자체를 解脫의 形狀으로 바라본 것이며, 아내의 정조를 유린한 姦夫의 파렴치한 행위 앞에서도 超脫할 수 있었던 것은 處容의 忍辱菩薩 또는 法行龍이었음은 물론이요, 佛法的인 달, 圓融한 法身 자체의 달, 解脫의 形狀 아래인 점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았으며, 〈講轉法輪歌〉에서 ‘覺月’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며, 《三國遺事》所載 其他 紀事에서도 똑같은 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 맹약을 어긴 孝成王의 변심을 달이 애달파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불변의 존재로 보았고, 百濟歌謠인 〈井邑詞〉에서 行商人의 아내로서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즌 덕’을 디딤으로써 생길 부부애의 파탄을 달에 託託하여 불변의 사랑을 달에 염원했으니 이도 또한 달을 불변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耆婆郎의 高邁한 인품을 달이 좇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이미 달을 高邁한 人品을 지닌 존재로 보았으며, 〈致唐太平頌〉과 普耀禪師의 眞影을 讚한 달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달을 살펴보았다.

이리하여 新羅歌謠에 나타난 달의 구체적인 의미는 祥瑞로운 존재, 解脫의 形狀, 불변하는 존재, 高邁한 人品을 지닌 존재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은 고대인들의 염원의 대상이었으며 理想이었으며 永遠回歸로 통하는 것이었다.

新羅歌謠의 作歌(歌唱)者를 중심으로 하여 보았을 때 현실과 염원의 二元的인 의미구조 속에서 달은 현실문제와는 相反된 관계를 유지하며 염원과는 관념적인 동조는 물론이요, 염원실현의 주요한 質體의 하나로 작용한다. 다만 讚歌와 같이 현실이 부정적하고 有害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해야 할 상태에 있는 것은 현실과 염원이 상반되지 않으며 그 속에서의 달도 양자에 관념적인 동조를 하면서 더 높은 염원의 상태로 끌어 올리는 質體로써 작용한다. 〈讚耆婆郎歌〉에서 달에

내·조약·갓 등으로 상징되는 翫婆郎의 인품을 따르고 있지만 其實 달은 翫婆郎으로 은유되고 있으면서 더 높이 찬양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讚歌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新羅人, 더 나아가서 고대인들의 눈에 비친 天上의 달은 단순한 天體의 하나가 아니라 善神으로서 현실과 영원의 증개자요 매개체였으며, 고대인들의 삶의 목표도 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영원이요 이상이였다.

이처럼 新羅歌謠에 있어서는 영원한 존재이자 신격적인 존재로서 原初的인 의미를 지니던 달이 高麗歌謠에 와서는 보다 抒情性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시대를 더함에 따라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上代歌謠에서부터 동시적으로 이어지는 달 의미의 맥락을 찾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본다. 또 本稿에서는 新羅歌謠가 作歌者 또는 歌唱者의 영원의 호소라는 목적의식에서 불리어진 점을 증시하여, 그 당면한 '현실' 문제와 그 현실문제에서 벗어나고자한 '念願'과의 관계에서 달이 나타내 주는 의미를 고찰해 보았으나, 이밖에도 달 자체의 신화론적인 상징과 사회학적·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하다고 본다. 물론 新羅歌謠에 대한 完全無缺한 해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달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더욱 尖銳化할 것을 다짐해 보며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